

 농림축산식품부 동 정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			
보도 일시	2022. 8. 14.(일) 15:00 배포 시	배포 일시	2022. 8. 14.(일) 15:00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국 원예경영과	책임자	과 장 유원상 (044-201-2251)
		담당자	사무관 박주용 (044-201-2260)

정황근 농식품부장관,

추석 성수품 햇배 수확·출하 수급상황 현장점검

- 추석 전까지 재해대응·병해충관리 및 수급관리에 총력 대응 -

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14일(일) 오후, 충남 천안시를 방문해 햇배(원황) 수확 현장을 점검하고, 이후 천안시 소재 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추석 성수품인 배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를 격려했다.

올해 배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봄철 개화기 저온 피해가 미미하고 생육기 기상 조건이 양호한 상황이다. 또한 병해충이 특별하게 증가하지 않고 배의 생육상황도 전반적으로 양호해 생산량은 예년보다 10~20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 8월 상순부터 수확되고 있는 원황의 품질도 양호하고, 신고도 현재 기준으로 과실비대 및 생육이 양호한 상황이다.

- * '22년 재배면적(통계청): 9,687ha(전년 대비 0.1%↑, 평년 대비 1.8%↓)
- * '22년 생산량 전망(한국농촌경제연구원): 247천 톤(전년 대비 17.3%↑, 평년 대비 20.5%↑)

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“추석 명절이 임박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호우·태풍 등 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, 성수기 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농가 수확부터 선별, 포장 및 공급 등 전 과정을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특히 “농촌진흥청, 농협 등 관련 전문가들은 과일 품질 향상을 위해 농가 기술지도를 철저히 추진하고, 배수로 정비, 지주시설 보강 등 재해에 대한 준비도 세심하게 점검·지도하여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을 지시하였다.

올해 추석을 대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3주 동안(8.22.~9.8.) 14개 추석 성수품 물량을 일반적인 공급보다 1.5배 수준 확대하고, 소비쿠폰을 활용하여 대형마트 할인판매, 농협하나로마트를 통해 선물꾸러미를 시중가 대비 할인판매 하는 등 성수품 수급 대책을 추진하여 원활한 공급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.

